

여자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셀피 보정,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 유 리

이 소 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이상섭식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SNS 셀피(selfie,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사진)보정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분석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여자고등학교 1곳의 1, 2학년 253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셀피 보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이상섭식태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와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분석, 조절분석,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셀피 보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이상섭식태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셀피 보정을 매개로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SNS 셀피 보정 수준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로 조절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SNS 셀피 보정을 매개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이상섭식태도로 가는 경로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이상섭식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SNS 셀피 보정

* 본 논문은 조유리(2020)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차세대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2019년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됨.

† 교신저자: 이소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소장, (043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leesy@sm.ac.kr

이상섭식태도란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생각, 신념, 정서 또는 행동을 의미하며 (Alvarenga, Scagliusi, & Philippi, 2010), 구체적으로 음식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식’, 단시간 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 그리고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러 음식을 억제하고 조금씩 먹거나 작게 잘라서 먹는 ‘섭식통제’로 이루어진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이상섭식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배고플 때 식사를 회피하거나, 폭식하거나, 지방, 당 또는 칼로리 함량이 높은 음식을 회피하거나, 과도한 식이조절 및 운동, 식사 후 토하는 행동 등을 보일 수 있다(Hill, Masuda, & Lutzman, 2013). 그중 여자 청소년은 평생 중 에너지와 영양소가 가장 크게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강현주, 2012), 높은 비율로 이상섭식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ear, Bulik, & Sullivan, 1996). 실질적으로 30,652명의 여자 청소년 중 23.0%가 단식,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물론 ‘의사 처방 없이 살 빼는 약 먹기’, ‘설사약 및 이뇨제 복용’, ‘식사 후 구토와 같은 극단적인 체중조절방법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7).

이러한 이상섭식태도가 심각해질 경우 섭식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Drewnowski, Yee, Kurth, & Krahn, 1994).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체내 비축영양이 적으므로 섭식장애로 인한 신체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으며(김율리, 2018), 신체적 발달 및 성장은 물론 심리사회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Treasure, 2016). 연구에 의하면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비행, 공격적 행동 등의 외현

화 행동 문제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erpertz-Dahlmann et al., 2008). 이와 같은 이상섭식 및 섭식장애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Culbert, Racine, & Klump, 2015). 그러나 BMI와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신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태도, 감정을 반영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이상섭식태도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박윤영, 이소연, 2019),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섭식장애 예방을 위한 통합적 모형에서는 행동적 요인 역시 주요하게 다루며, 개인적·사회환경적 요인과 함께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Irving & Neumark-Sztainer,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동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가 발생하는 기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는 완벽주의가 있다(Bardone-cone et al., 2010; Stein et al., 2002). 완벽주의란 모든 영역에서 결점 없는 완벽한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높은 기대를 갖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하며(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Bardone-Cone et al., 2007; Castro Fornieles et al., 2007; Ferreira, Duarte, Pinto-Gouveia, & Lopes, 2018). 그런데 기존에 연구된 완벽주의 성향이 완벽하고자(need to be perfect)하는 개인의 기질적 측면이라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관계에서 완벽하게 보이하고자(need to appear perfect)하는

표현적 욕구이다(하정희, 2011; Hewitt et al., 2003).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기존의 완벽주의 성향보다 섭식장애 증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완벽주의 성향은 섭식장애 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oerber et al., 2017). 이는 이상섭식태도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좋게 보이 고자 하는 긍정적 자기제시가 극단적이고 기만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Hewitt et al., 2003). 이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되는 행동은 계속하는 반면,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하정희, 201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인정과 수용에 민감하여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이동귀, 서해나, 2010). 즉,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믿고(Ferreira, Trindade, & Ornelas, 2015), 외모와 체중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McLaren, Gauvin, & White, 2001). 따라서 이들은 외적 모습을 가꾸는 데 몰두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극단적인 형태의 체형 및 체중관리, 섭식행동 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Ferreira et al., 2015). 실증적으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거식행동 및 폭식행동(Hewitt, Flett, & Ediger, 1995), 섭식 통제(McLaren et al., 2001)와 같은 섭식장애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이상섭식태도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Mendes, Ferreira, Marta- Simoes, & Trindade, 2016).

한편,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적 요인으로 SNS 활동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줌으로써 웹상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하승태, 2012). Saul과 Rodgers(2018)의 개관 연구에 의하면, 최근 SNS 이용이 신체만족도와 섭식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경험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모든 SNS 활동이 신체상의 왜곡이나 섭식 문제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진을 보거나 업로드하는 등 신체 이미지 중심의 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and & Tiggemann, 2016; Meier & Gray, 2014). 그중에서도 셀피(selfie)와 관련된 SNS 활동이 신체상, 신체 만족 등 신체 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s, Musto, Williams, & Tiggemann, 2018; Tiggemann & Slater, 2013). 셀피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며(김동섭, 백은수, 추호정, 2017), 한국식 영어로 셀프카메라의 줄임말인 '셀카'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의 대중매체가 미디어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노출시키는 것과 달리, SNS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생산하고 즉각적으로 수정 및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영향력을 지니는데(설진아, 2009; 송혜진, 오세연, 2013), '셀피 보정' 활동은 이러한 SNS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다.

SNS 셀피 보정은 SNS에 공유할 셀피를 조작 및 편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McLean, Paxton, Wertheim, & Masterset, 2015). 과거에는 사진 보정 기술이 광고와 잡지 속의 모델이나

연예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일반 대중은 자신의 외모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날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Rajanala, Maymone, & Vashi, 2018). 이에 사람들은 셀피보정을 통해 더욱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셀피를 면밀히 살피며 보정하는 동안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불안전함에 더욱 몰두할 수 있고(Mills et al., 2018), 섬세하게 보정된 셀피는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를 제시하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Rajanala et al., 2018). 실제로 몇몇 성형외과 의사들은 사람으로부터 보정된 셀피와 유사하게 수술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Ramphul & Mejias, 2018). 이처럼 SNS 셀피 보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정된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적인 자기 모습 사이의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게 되어 이상섭식태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Lee-Won, Joo, Baek, Hu, & Park, 2020), 셀피 보정이 신체불만족과 섭식장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onergan et al., 2019; Lonergan et al., 2020). 현재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셀피 보정 어플의 사용은 관습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Tremblay, Tremblay, & Poirier, 2020), 이상섭식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SNS 셀피 보정은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는 행동적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SNS 셀피 보정 행동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라는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강화될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상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초점을 두며(김다정, 오경자, 2017)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중시한다(이동귀 외, 2010). 외모적 매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

적 승인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Langlois et al., 200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인상을 제시하고 불안전하다고 지각되는 신체적 결함은 숨기고자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수술을 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비교했을 때 성형수술을 한 여성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노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Sherry, Hewitt, Flett, & Lee-Baggley, 2007). 특히 SNS는 자신의 모습을 전략적으로 편집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Mendelson & Papacharissi,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정 기술을 활용하여 SNS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완벽에 가깝게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셀피 보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셀피 보정은 다시 이상섭식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파악된다. 실험연구에 의하면 성인 여성이 마른 신체 사진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 불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이처럼 실험환경에 의해 유발된 신체 불만족은 이후 셀피 보정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Tiggemann, Anderberg, & Brown, 2020). 이에 Tiggemann 등(2020)은 셀피 보정 행동이 일시적으로 조작된 환경이 아닌, 개인의 평소 습관 또는 성격적 특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셀피 활동이 부정적인 정서와 얼굴 불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NS 셀피 보정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라는 개인적 성향에 의해 강화되며, 이상섭식태도를 유의하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일수록 셀피를 올리

기 전에 완벽에 가깝게 보정하며, 셀피 보정과 같은 SNS상의 외모관리 행동이 과도해지면, 오프라인에서도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게 되어 섭식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한편, 섭식장애는 특정한 하나의 위험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선, 오경자, 2004). 특히 SNS 셀피 활동과 같은 단일한 행동적 변인이 독자적으로 이상섭식태도를 유발하기보다는 다른 개인 내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셀피 보정과 신체 및 섭식 관련 변인의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 두 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셀피 보정이 이상섭식태도(Lee-Won et al., 2020), 얼굴불만족(Tiggemann et al., 2020)에 정적 영향과 지각된 신체적 매력(Mills et al., 2018)에 부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쳤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섭식제한, 신체불만족(Mclean et al., 2015)과 신체만족도(Cohen, Newton-John, & Slater, 2018)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Lee의 연구(2019)에서는 보정된 셀피가 SNS상의 이상적인 타인의 모습과의 간극을 줄여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안되기도 하였다(Lee & Lee, 2019). 따라서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능한 조절 변인으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란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깊이 수용하여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능동적인 인지 및 태도를 의미한다(Cafri, Yamamiya, Brannick, & Thompson, 2005).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외모를 추구하도록 가족, 친구, 미디어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는다고 인식하지만(Schaefer et al., 2017), 지각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Fitzsimmons-Craft, 2011). 이는 사람들이 사회문화적 압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을 신념, 가치관 등으로 내면화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신체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Dittmar, 2005).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Knauss & Alsaker, 2007), 만7세-11세의 어린 여성 집단에서도 마른 신체상의 내면화로 인해 신체불만족을 겪고 이상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vans, Tovée, Boothroyd, & Drewett, 2013).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취약할 수 있고, 이른 시기부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념을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내면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면화가 이상섭식태도의 위험을 어떻게 높이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미디어 관련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신체 및 섭식 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내면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광

고 노출과 신체 불만족의 관계를 조절하였고(Krawczyk & Thompson, 2015), 미디어의 마른 모델 이미지 노출과 신체에 대한 불안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Dittmar & Howard, 2004). 실험연구에 의하면 성인 여성이 미디어 속 마른 모델의 이미지에 노출되었을 때, 마른 신체상에 대한 내면화가 높은 집단에서만 이상적인 체형과 실제적 체형 간의 괴리에 몰두하며 자기 불일치를 보고하였고, 이러한 자기 불일치는 신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Halliwell, & Stirling, 2009). 같은 맥락에서 셀피 보정을 하는 모든 여자 청소년들이 이상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 수준이 높은 여자 청소년이 셀피 보정을 할 경우, 보정된 자기 모습과 실제의 모습 간의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고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자 외모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상섭식태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는 SNS상에서의 셀피 보정 행동이 오프라인에서의 거식, 폭식, 섭식제한과 같은 이상섭식태도로 가는 경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Irving과 Neumark-Sztainer(2002)는 신체 및 섭식 관련 장애는 개인적, 사회환경적, 행동적 측면을 지니며, 행동의 변화는 개인적·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

서 각 요인들을 섭식 문제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에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행동적 요인으로 SNS 셀피 보정,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내면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셀피 보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셀피 보정은 이상섭식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SNS 셀피 보정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외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셀피 보정이 각각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제시하여 세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미비하고, 국내에서는 SNS 셀피 활동과 섭식 관련 변인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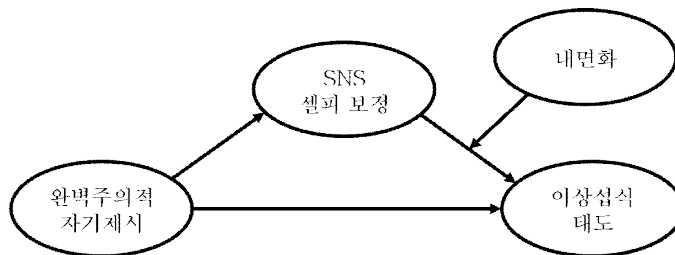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계를 다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SNS 활동이 섭식 관련 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기제를 밝힌 소수의 국내 연구가 존재하는 하나, SNS 셀피의 양과 팔로잉 계정 수를 변인으로 활용한 전소정, 성용준, 양은주의 연구(2018)에서는 신체상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SNS 활동을 보다 복합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수인, 양수진의 연구(2020)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지 기반 SNS 활동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셀피 활동 중 '보정'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만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면, SNS 셀피 보정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적 성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고, 특정 성향에 의해 유발된 셀피 보정 행동이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와 그러한 효과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SNS 셀피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셀피 보정,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고등학교 1곳에 재학 중인 여학생 1~2학년 3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된 347부의 설문지 중 동의서가 누락된 87부,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부와, SNS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카카오톡(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종류라고 응답한 3부를 제외한 25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이 134명(53%), 2학년이 119명(47%)이었다.

측정도구

이상섭식태도

Garner와 Garfinkel(1979)가 개발하고,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보완한 식이태도검사(Eating Attitude Test-26)를 이민규, 고영택, 이혜경, 황을지, 이영호(2001)가 타당화한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KEAT-26)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식(13문항), 폭식증과 음식에 대한 몰두(6문항), 섭식통제(7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산출되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Hewitt 등(2003)이 개발하고 하정희(2011)가 변안 및 타당화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PSP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8문항), 불안전함 은폐노력-행동적(5문항), 불안전함 은폐노력-언어적(6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19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산출되었다.

SNS 셀피 보정

McLean 등(2015)이 SNS에 공유하기 전 셀피를 보정하는 행동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사진보정 척도(Photo Manipulat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자가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심리학 관련 전공자 1인이 영어로 다시 역번역을 하였으며, 이 두 가지 번역본을 연구자와 임상 심리학 전공 교수가 검토하여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여자 고등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명료성 및 가독성을 '전혀 이해되지 않음'의 0점에서부터 '완전히 이해됨'의 5점까지 Likert 5점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문항들의 명료성과 이해도가 4.67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척도는 총 10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자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항('Make yourself look larger')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삭제한 후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으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셀피 보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여자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보고되었고(Lonergan, et al., 2020), 본 연구에서

는 .85로 산출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가 개발하고, Schaefer 등(2016)이 개정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질문지 4R판(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4R)을 이다혜(20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내면화(12문항)와 압력(15문항)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내면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산출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제안에 따라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단순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부트스트래핑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조절효과와 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한 조절분석과 단순 기

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들이 검증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왜도가 절댓값 3 미만, 첨도가 절댓값 10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정규성 가정(Kline, 2005)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섭식태도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41, p<.01$), SNS 셀피 보정($r=.35, p<.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r=.50, p<.01$) 각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셀피 보정($r=.22, p<.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r=.44, p<.01$)는 유의미하였고, SNS 셀피 보정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r=.36, p<.01$)는 유의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셀피 보정을 통해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model 4)를 이용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표본 수 10,000개를 재추출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53, CI [.021\sim.091]$). 즉, 여자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SNS 셀피 보정을 매개로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253)

변인	1	2	3	4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2. SNS 셀피 보정	.22**	-		
3. 내면화	.44**	.36**	-	
4. 이상섭식태도	.41**	.35**	.50**	-
평균	74.10	21.66	37.38	5.26
표준편차	18.62	7.36	7.67	6.17
첨도	-.13	-.30	-.32	1.41
왜도	.13	.31	.06	.96

** $p<.01$

표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N=253)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총 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이상섭식태도	.353	.051	.254	.452
직접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이상섭식태도	.300	.050	.202	.398
간접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SNS 셀피보정→이상섭식태도	.053	.018	.021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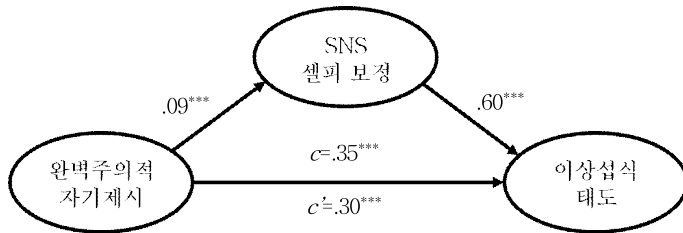


그림 2. 매개모형 분석 결과

*** $p < .001$,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c=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총효과 크기

c'=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

조절효과 검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 사이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제시되었듯이 SNS 셀피 보정

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의 상호작용항이 이상섭식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했고($B = .041, p < .01$),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Delta R^2 = .021, p < .01$). 따라서,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효과

(N=253)

	B	SE	t	95% CI		F	R^2	ΔR^2
				LL	UL			
내면화	-1.150	.608	-1.893	-2.348	.047	36.001	.310	.310***
SNS 셀피 보정	-.025	.367	-.068	-.748	.699			
SNS 셀피 보정 x 내면화	.041	.015	2.680**	.008	.071			

** $p < .01$, *** $p < .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효과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SNS 셀피 보정 수준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수준의 M-1SD, M, M+1SD에 따라 저, 중, 고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내면화의 수준에 따라 SNS 셀피 보정이 이상섭식태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내면화의 조절효과는 내면화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가 낮은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 셀피 보정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주효과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가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그림 3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내면화의 조건에 따라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가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

다. 내면화가 높은 집단에서 SNS 셀피 보정과 이상섭식태도 간의 기울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SNS 셀피 보정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SNS 셀피 보정 수준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1단계에서 매개모형이, 2단계에서 조절모형이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Hayes(2013)의 Process

표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 내면화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i>b</i>	<i>SE</i>	<i>t</i>
내면화 수준	저(M-1SD)	.065	.189	.344
	중(M)	.380	.128	2.960***
	고(M+1SD)	.695	.158	4.41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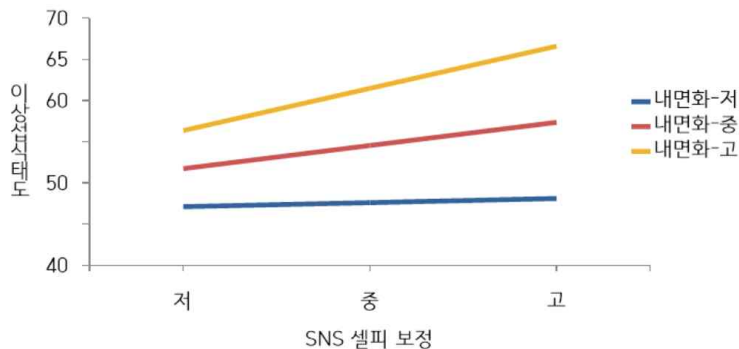


그림 3. 내면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

표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N=253$)

종속변인: SNS 셀피 보정			
	<i>B</i>	<i>SE</i>	<i>t</i>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087	-.025	3.552***
종속변인: 이상섭식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85	.050	3.678***
SNS 셀피보정	-1.197	.593	-2.020***
내면화	-.216	.362	-.597***
SNS 셀피 보정 x 내면화	.041	.015	2.767***

* $p < .05$, ** $p < .01$, *** $p < .001$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서 제시하였다. SNS 셀피 보정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이상섭식태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41, p<.01$).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을 확인한 결과, $Index=0.004, CI(.007\sim.007)$ 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셀피 보정을 매개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이상섭식태도로 가는 경로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조건부 매개분석을 위해 조절변인

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수준을 M-1SD, M, M+1SD에 따라 저, 중, 고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내면화의 평균(M), 1 표준편차 위(+1SD)에 따른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1 표준편차 아래(-1SD)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가 높아짐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절된 매개효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가 평균 이상에서만 유

표 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의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N=253$)

		<i>b</i>	<i>SE</i>	95% CI	
				LL	UL
내면화 수준	저(M-1SD)	.002	.016	-.028	.035
	중(M)	.030	.014	.006	.061
	고(M+1SD)	.058	.022	.019	.104

의미하게 나타났고, 낮은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SNS 셀피 보정을 통해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이상섭식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SNS 셀피 보정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분석을 검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셀피 보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이상섭식태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보정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SNS 셀피 보정을 많이 하게 되고 셀피 보정을 많이 할수록 높은 수준의 이상섭식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섭식제한의 관계에서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참여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기존의 선행연구(Chang, Jarry, & Kong, 2014)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경로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탐색해볼 수 있다. 우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평가를 염려하여 외모적 완벽성을 추구하게 된다(Hewitt et al., 1995).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집단은 옷차림이나 외모 등 외양 관리에 신경 쓰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귀 외, 2010), 완벽주의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외모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ng et al., 2014). 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과 관련된 개념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적 인정과 수용을 받기 위해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추된다. 같은 맥락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여자 청소년은 SNS에 셀피를 올릴 경우,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신체적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은폐하고자 보정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SNS 셀피 보정을 많이 하게 되면, 신체적 결함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보정된 셀피 속 외모를 목표로 체형관리를 하면서 이상섭식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추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같이 기존에 개인이 지니고 있던 성향의 즉각적인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섭식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맥락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상담장면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적 변인인 SNS 셀피 활동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보정된 셀피를 토대로 내담자가 추구하는 신체상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SNS 셀피 보정의 수준을

점검하여 신체상을 왜곡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SNS 셀피 보정과 이상 섭식태도의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면화가 미디어 관련 변인과 신체 및 섭식 관련 변인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여러 선행연구(Krawczyk et al., 2015; Dittmar et al., 2004)와 맥락을 같이 하며, 내면화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셀피 보정이 여자 청소년의 섭식통제와 신체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McLean et al., 2015) 유사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면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적 모습의 차이에 의한 자기 불일치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으며(Dittmar et al., 2009), 외모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적 미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셀피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정된 모습과 현실적 모습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게 되어 심각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면화된 이상적 자기와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과도할 때 이상섭식태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내면화 수준을 상담 또는 교육을 통해 조율할 수 있다면 SNS 셀피 보정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NS 셀피 보정 행동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내면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한다면 선행연구(Cohen et al., 2018; Lee et al., 2019)에서 제시하였듯이 SNS 셀피 활동의 긍

정적인 효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여자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수준이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면화 수준이 평균 이상일 때만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내면화가 낮은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매개효과가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여자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요인이 지니는 잠재적인 위험효과를 증폭시키는 조절적 역할을 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이상섭식태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념은 여성 스스로 몸에 대한 학대를 감수하게 하고, 신체적 매력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의 삶을 제약한다(고석주 외, 1992). 이에 청소년기에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외모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조건적인 태도를 내면화하는지 점검하고, 심리적·행동적 위험요인과 함께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상섭식태도의 관계에서 SNS 셀피 보정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여자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위험

요인으로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여자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단순히 전반적인 SNS 이용시간이나 빈도가 아닌 특정 SNS 활동이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V, 잡지 등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SNS는 능동적인 정보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로딩 활동 중심으로 이상섭식태도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특히, SNS 업로딩 활동 중에서도 국내에 셀피 보정의 정도를 다룬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할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고등학교 1곳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근래에는 외모로 개인을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남성들의 몸매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체중관리를 시도하는 남성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안귀여루, 2012), 남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태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셀피 보정이 이상섭식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SNS 셀피 관련 활동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에 있어 여자 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SNS 셀피에 대

한 투자 및 보정, 이상섭식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라는 변인들이 횡단적으로만 측정되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측정하고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SNS 셀피에 대한 투자 및 보정이라는 변인에서 셀피는 자신에 대한 사진을 의미하여, 얼굴 사진과 신체 사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얼굴을 근접하게 찍은 셀피와 전반적인 신체가 드러나게 찍은 셀피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서로 다르므로 각 유형에 대한 셀피 보정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셀피 활동은 얼굴 불만족을 높이기도 하고(Tiggemann et al., 2020), 신체 불만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Lonergan et al., 2019), 얼굴사진 또는 체형사진 등 셀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SNS 셀피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SNS 셀피 활동과 이상섭식태도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 관련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자 청소년과 여대생의 이상섭식태도 위험요인의 변인군별 효과 크기를 분석한 국내 메타연구(박윤영 외, 2019)에 의하면, BMI와 같은 신체 관련 변인군이 심리 관련 변인군과 사회문화 관련 변인군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효과크기를 보이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신체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통합적 모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주 (2012). 한국 청소년의 체중인식과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의 지평*, 9(1), 24-35.
- 고석주, 정진경, 조혜정 (1992).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 8, 33-75.
- 김다정, 오경자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6(1), 56-63.
- 김동섭, 백은수, 추호정 (2017). 자기제시와 자기표현 태도가 SNS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9(6), 701-711.
- 김율리 (2018). 섭식장애의 신체적 이상과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61(3), 191-197.
- 박윤영, 이소연 (2019). 여자 청소년과 여대생의 이상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7(1), 105-140
-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 매개효과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663-679.
- 설진아 (200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35-57.
- 송혜진, 오세연 (2013). 대학생의 MSNS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중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2), 56-82.
- 안귀여루 (2012).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고생의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4), 963-977.
- 이동귀, 서해나 (2010). 상담일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향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의 특성비교. *상담학연구*, 11(1), 91-110.
- 이다혜 (2018). 한국판 청소년용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질문지 4R판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 고영택, 이해경, 황을지, 이영호 (2001).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 (the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의 타당화. *정신신체의학*, 9(2), 153-163.
- 이상선, 오경자 (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91-106.
- 전소정, 성용준, 양은주 (2018). 소셜미디어 이용행동과 여성의 신체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1), 69-89.
- 정수인, 양수진 (2020). 성인 초기 여성의 이미지 기반 SNS의 과도한 사용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객체화된 신체의식과 외모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5(1), 49-69.
- 질병관리본부 (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하승태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수용자의 정치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2(4), 575-606.
- 하정희 (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121-1140.
- Alvarenga, M. d. S., Scagliusi, F. B., & Philippi, S. T. (2010).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disordered eating attitude scale (DEA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10(2), 379-395.
- Bardone-Cone, A. M., Harney, M. B., Maldonado, C. R., Lawson, M. A., Robinson, D. P.,

- Smith, R., & Tosh, A. (2010). Defining recovery from an eating disorder: Conceptualization, validation, and examination of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psychiatric comorbidi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3), 194-202.
- Bardone-Cone, A. M., Wonderlich, S. A., Frost, R. O., Bulik, C. M., Mitchell, J. E., Uppala, S., et al. (2007).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3), 384-405.
- Cafri, G., Yamamiya, Y., Brannick, M., & Thompson, J. K. (2005).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on body image: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2(4), 421-433.
- Castro Fornieles, J., Gual, P., Lahortiga, F., Gila, A., Casulà, V., Fuhrmann, C., ... & Toro, J. (2007). Self oriented perfectionism in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6), 562-568.
- Chang, F. M., Jarry, J. L., & Kong, M. A. (2014). Appearance investment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dietary restraint. *Body Image*, 11(1), 72-76.
- Cohen, R., Newton-John, T., & Slater, A. (2018). 'Selfie'-objectification: The role of selfies in self-objectification and disordered eating in young wome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9, 68-74.
- Culbert, K. M., Racine, S. E., & Klump, K. L. (2015). Research Review: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 causes of eating disorders-a synthesis of sociocultur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11), 1141-1164.
- Dittmar, H. (2005).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Body image-vulnerability factors and processes linking sociocultural pressures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8), 1081-1087.
- Dittmar, H., & Howard, S. (2004).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y as moderators of media models' impact on women's body-focused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6), 768-791.
- Drewnowski, A., Yee, D. K., Kurth, C. L., & Krahn, D. D. (1994). Eating pathology and DSM-III-R bulimia nervosa: A continuum of behavio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8), 1217-1219.
- Evans, E. H., Tovée, M. J., Boothroyd, L. G., & Drewett, R. F. (2013).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attitudes in 7-to 11-year-old girls: Testing a sociocultural model. *Body image*, 10(1), 8-15.
- Fear, J., Bulik, C., & Sullivan, P. (1996). The prevalence of disordered eating behaviours and attitudes in adolescent girls.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25, 7-12.
- Ferreira, C., Duarte, C., Pinto-Gouveia, J., & Lopes, C. (2018). The need to present a perfect body image: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Current Psychology*, 37(3), 559-567.
- Ferreira, C., Trindade, I. A., & Ornelas, L. (2015). Exploring drive for thinness as a perfectionistic strategy to escape from shame experience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8.

- Fitzsimmons-Craft, E. E. (2011).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of disordered eating in college women: Review and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7), 1224-1237.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Haferkamp, N., Eimler, S. C., Papadakis, A., & Kruck, J. V. (2012).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self-present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2), 91-98.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erpertz-Dahlmann, B., Wille, N., Holling, H., Vloet, T. D., Ravens-Sieberer, U., & BELLA Study Group. (2008). Disordered eating behaviour and attitudes, associated psychopatholog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sults of the BELLA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7*(1), 82-91.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5). Perfectionism traits and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in eating disorder attitudes,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4), 317-326.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et al.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ill, M. L., Masuda, A., & Latzman, R. D. (2013). Body image flexibility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isordered eating behavior for women with lower body mass index. *Eating Behaviors, 14*(3), 336-341.
- Holland, G., & Tiggemann, M. (2016).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on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outcomes. *Body Image, 17*, 100-110.
- Irving, L. M., & Neumark-Sztainer, D. (2002). Integrating the prevention of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feasible or futile?. *Preventive Medicine, 34*(3), 299-309.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Krawczyk, R., & Thompson, J. K. (2015). The effects of advertisements that sexually objectify women on state body dissatisfaction and judgments of women: The moderating roles of gender and internalization. *Body image, 15*, 109-119.
- Langlois, J. H., Kalakanis, L., Rubenstein, A. J., Larson, A., Hallam, M., & Smoot, M. (2000). Maxims or myths of beauty?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3), 390.
- Lee, M., & Lee, H. H. (2019). Can virtual makeovers using photo editing applications moderate negative media influences on SNS

- users' body satisfac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 Lee-Won, R. J., Joo, Y. K., Baek, Y. M., Hu, D., & Park, S. G. (2020). "Obsessed with retouching your selfies? Check your mindset!": Female Instagram users with a fixed mindset are at greater risk of disordered ea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7*, 110223.
- Lonergan, A. R., Bussey, K., Mond, J., Brown, O., Giffiths, S., Muray, S. B., et al. (2019). Me, my selfie, and I: The relationship between editing and posting selfies and body dissatisfaction in men and women. *Body Image, 28*, 39-43.
- Lonergan, A. R., Bussey, K., Fardouly, J., Griffiths, S., Murray, S. B., Hay, P., ... & Mitchison, D. (2020). Protect me from my selfie: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hoto-based social media behaviors and self-reported eating disorders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3*(5), 485-496.
- McLaren, L., Gauvin, L., & White, D. (2001). The role of perfectionism and excessive commitment to exercise in explaining dietary restraint: Replication and ext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3), 307-313.
- McLean, S. A., Paxton, S. J., Wertheim, E. H., & Masters, J. (2015). Photoshopping the selfie: Self photo editing and photo investment are associated with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8*(8), 1132-1140.
- Meier, E. P., & Gray, J. (2014). Facebook photo activity associated with body image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7*(4), 199-206.
- Mendes, A., Ferreira, C., Marta-Simoes, J., & Trindade, I. (2016). The effects of shame, self-compassion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f body image on eating psychopathology. *European Psychiatry, 33*, S428.
- Mendelson, A. L., & Papacharissi, Z. (2010). Look at us: collective narcissism in college student facebook photo galleries. In Z. Papacharissi (Ed.), *The networked self: Identity, community and culture on social network sites*. New York: Routledge.
- Mills, J. S., Musto, S., Williams, L., & Tiggemann, M. (2018). "Selfie" harm: Effects on mood and body image in young women. *Body Image, 27*, 86-92.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ajanala, S., Maymone, M. B., & Vashi, N. A. (2018). Selfies: living in the era of filtered photographs. *JAMA facial plastic surgery, 20*(6), 443-444.
- Ramphul, K., & Mejias, S. G. (2018). Is "Snapchat Dysmorphia" a real issue?. *Cureus, 10*(3).
- Saul, J. S., & Rodgers, R. F. (2018). Adolescent eating disorder risk and the online world.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7*(2), 221-228.
- Schaefer, L. M., Burke, N. L., & Thompson, J. K.

- (2019). Thin-ideal internalization: how much is too much?. *Eating and Weight Disorders-Studies on Anorexia, Bulimia and Obesity*, 24(5), 933-937.
- Schaefer, L. M., Harriger, J. A., Heinberg, L. J., Soderberg, T., & Kevin Thompson, J.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4revised(SATAQ 4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50(2), 104-117.
- Sherry, S., Hewitt, P., Flett, G., & Lee-Baggley, D. (2007). Perfectionism and undergoing cosmeti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29(8), 349-354.
- Stein, D., Kaye, W. H., Matsunaga, H., Orbach, I., Har-Even, D., Frank, G., et al. (2002). Eating related concerns, mood, and personality traits in recovered bulimia nervosa subjects: A replic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2), 225-229.
- Stoeber, J., Madigan, D. J., Damian, L. E., Esposito, R. M., & Lombardo, C. (2017).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central role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Eating and Weight Disorders-Studies on Anorexia, Bulimia and Obesity*, 22(4), 641-648.
- Tiggemann, M., Anderberg, I., & Brown, Z. (2020). Uploading your best self: Selfie editing and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33, 175-182.
- Tiggemann, M., & Slater, A. (2013). NetGirls: The internet, facebook, and body image concern in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4(6), 630-633.
- Treasure, J. (2016). Eating disorders. *Medicine*, 44(11), 672-678.
- Tremblay, S. C., Tremblay, S. E., & Poirier, P. (2020). From filters to fillers: an active inference approach to body image distortion in the selfie era. *AI & SOCIETY*, 1-16.

1차원고접수 : 2020. 10. 20.

심사통과접수 : 2020. 12. 24.

최종원고접수 : 2020. 12. 3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mong Female Adolescent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Selfie Editing**

YuRi Cho

SoYean Lee

Sook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ie edit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nd to determine whether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moderates the significant mediation effects identified. Participants were 253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y completed measures of perfectionist self-presentation,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selfie editing, and disordered eating attitud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5.0 and PROCESS macro(Hayes, 2013). Results indicated tha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nd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selfie editing. Furthermor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e editing and disordered eating attitudes. Last,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moderated the indirect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attitudes via selfie editing.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Disordered Eating Attitudes,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Selfie Editing